

적조 위기경보 ‘경계’에서 ‘주의’단계로 하향 조정

- 남해 연안 2개 해역 적조 주의보를 예비특보로 조정함에 따라 위기경보 하향
- 국립수산물과학원, 지자체 합동으로 적조예찰 등 감시활동 지속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9월 25일(목) 16시부로 적조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 적조 위기경보 단계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 발령 기준 : 적조 예비특보 2개 해역 이상(혹은 적조 주의보 1개 해역 이상)

이는 국립수산물과학원이 경남 중부앞바다와 득량만 2개 해역에 내려진 적조 주의보를 예비특보로 낮추고, 나머지 6개 예비특보 해역*을 모두 해제한 데 따른 조치이다.

* 경남 거제 동부앞바다, 경남 서부 남해앞바다, 사천·강진만, 전남 동부 남해앞바다, 가막만, 전남 서부 남해앞바다

적조 위기경보 ‘주의’ 하향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적조 비상대책본부를 종합상황실로 전환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적조생물 발생 추이를 면밀히 관찰하여 양식어가에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양식 어가의 신속한 경영 재개와 민생 안정을 위해 피해가 확정된 어가에는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아직 피해 조사가 진행 중인 어가에 대해서는 신속히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적조 주의보 해역은 모두 해제되었으나, 적조 생물의 재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철저히 예찰하고 신속한 복구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양식 어가에서도 수온이 떨어지는 10월까지의 경각심을 유지하며 어장 관리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기원 (044-200-5610)
		담당자	사무관	박 한 (044-200-5392)
			사무관	김지수 (044-200-5622)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	책임자	과 장	한인성 (051-720-2210)
		담당자	연구관	윤석현 (051-720-2240)
			연구사	박태규 (051-720-226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참고

적조 주의보 하향 및 예비특보 해제(수과원, 9.25.14시 발표)

